

야구

4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4이닝 7실점 데뷔 첫 패 이대은 ‘쉽지 않은 첫 승’



KT 이대은

KT 위즈 이대은(29)이 두 번째 선발등판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대은은 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전에 선발등판해 4이닝 동안 88구를 던지며 8안타 2볼넷 3삼진 7실점(4자책점)을 기록했다. KBO리그 데뷔전인 지난 3월 26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 5이닝 7실점(5자책점)의 부진을 만회하려 했지만, 아쉬움만 남긴 채 교체됐다. 평균자책점은 기존의 9.00(9이닝 9자책점)을 유지했다. 마운드에 약점을 안고 있는 KT가 이대은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2018년 9월 열린 2019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그를 지명한 이유도 마운드의 약점을 메울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이강철 감독도 이날 경기에 앞서 “(이)대은이가 지난 등판에서 시범경기 때와 겹쳐 구위와 메커니즘 모두 좋았다. 승패를 떠나 강팀인 두산 타선을 상대로 잘 던지면 본인도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최고 구속 146km의 직구에 투심패스트볼(투심), 슬라이더, 포크볼, 너클커브를 곁들였지만 두산 타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못했다. 특유의 강력한 구위가 나오지 않다 보니 변화구의 위력도 반감됐다. 설상가상으로 수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팀도 0-9로 패하면서 KBO리그 데뷔 첫 패전까지 떠안은 아픈 하루였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KIA 월랜드, 삼성전 6.1이닝 1실점 ‘시즌 2승’

월랜드 선발 연착륙

3회까지 노히트 피칭...삼진만 7개
KIA 선발진 중 유일하게 승수 챙겨
고영창·하준영·김윤동 불펜도 호투

KIA 타이거즈 새로운 외국인투수 조 월랜드(29)가 안정적으로 KBO리그에 착륙 중이다.

월랜드는 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9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첫 맞대결에 선발투수로 등판했다. KBO리그 두 번째 등판에서 6.1이닝 1실점 7삼진으로 호투하며 시즌 2승째를 챙겼다.

월랜드는 KIA 선발투수진 중 유일하게 올 시즌 선발승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다. KIA는 2일까지 4승(5패)을 거뒀는데, 이 중 2승이 바로 월랜드의 선발승이다. 나머지 2승은 불펜투수 이준영(1승)과 하준영(1승)이 나눠 기록했다.

KIA는 ‘에이스’ 양현종이 승 없이 2패만을 안으며 평균자책점 5.25를 기록했다. 또 다른 새 외국인투수 제이콥 터너 역시 마찬가지로 두 경기에서 승 없이 2패 평균자책점 8.10으로 부진했다. 선발 로테이션에 있던 4선발 임기영은 왼쪽 늑간근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5선발 김기훈은 첫 선발등판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불펜진의 실점으로 승을 챙기지 못했다.

선발진의 불안한 출발 속에서 월랜드의 투구는 돋보인다. 3월 27일 한화 이글스전에서는 6이닝 3실점(2자책)으로 켈리티스타트(QS·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했는데, 2일 등판에서도 역시 QS를 마크했다.

월랜드는 이날 1회부터 안정적으로 공을 던졌다. 4회 선두타자 다린 러프에게 안타를 맞기 전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으며 ‘노히트’ 투구를 이어갔다. 내준 볼넷은 단 두 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삼진은 7개를 여여내며 구위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직구 최고구속은 시속 149km까지 나왔다. 변화구는 커브, 커터,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어 던지며 타자들을 요리했다. 함께 구사한 투심은 최고 구속이 148km까지 찍혔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조 월랜드가 2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6.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선발진이 불안정한 KIA에게 월랜드의 역투는 천군만마와 다를 없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검증된 외국인투수 헨터 노에시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감하게 월랜드와 터너를 영입, 새로운 전력으로 시즌을 맞이했다. 터너는 아직까지 리그 적응에 고전하고 있는데, 월랜드는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어 KIA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월랜드의 호투에 타선도 득점지원에

나섰다. 1회부터 3회까지 메이닝 득점하며 일찌감치 4점을 지원했다. 김주찬~최원준~김선빈이 나란히 1타점씩을 책임졌다. 월랜드로부터 공을 이어받은 불펜진은 리드를 끝까지 지켰다. 고영창~하준영~김윤동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모두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최종 4-1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SK 다익손

에이스 김광현 있기에 다익손 재촉 않는 SK 한국 무대 적응 기다림 ‘여유’

SK 와이번스는 한국 야구에 적응 중인 브록 다익손(25)의 성공을 재촉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수 이상의 몫을 해주는 토종 에이스 김광현(31)을 비롯해 탄탄한 국내 선발진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2018시즌 SK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끌고 메이저리그로 떠난 메릴 켈리의 빈 자리를 하루아침에 메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 역할을 이어받은 다익손은 KBO리그가 처음이다. 2019시즌 개막 후 두 경기서도 차례로 6이닝 4자책점(3월 26일·LG 트윈스), 4.1이닝 2자책점(31일·키움 히어로즈)으로 고전했다. 키움전에서는 직구 최고 구속이 146km에 그쳤다.

SK는 다익손의 적응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150km를 거뜬히 넘기는 강속구 투수를 선호하는 염경엽 감독은 애초부터 다익손의 뛰어난 신체조건에 기대를 걸었다. 구속은 떨어져도 205cm의 높이에서 출발하는 공은 강속구 투수의 그것보다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경기 운용에 관해서도 아직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 “투수가 던지고 싶은 공을 던져야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외국인 선수의 경우 하고 싶은 대로 뛰야 그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 ‘한국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설득이 된다”는 것이 염 감독의 설명이다.

한편으로 건재한 김광현의 존재가 다익손을 향해 생길 수 있는 SK의 애타는 마음을 잠재운다. “토종 1선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염 감독의 말처럼 김광현이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4.5선발을 맡은 박준호, 문승원도 제게 주어진 충분한 이닝을 책임져주면서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김광현도 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켈리 다음으로 내 몫을 다해 많은 이닝을 던졌지만, 올해는 역할이 바뀌었다”며 “모든 선발 투수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메인모델_ 네이비

SPRING
WIND
BREAKER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환절기 활동의 필수 아이템!

스포츠 우븐 바람막이 자켓 1 + 1 39,800원

1장도 안되는 가격에
2장을 보내드립니다.



카키

그레이

블랙



스포츠 우븐 바람막이 자켓은 등산·레저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시 항상 쾌적한 상태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를 보호하며 비바람을 차단하는 방수·방풍 기능과 더불어 높은 통기성을 유지하고 몸 안의 수분을 밖으

로 내보내는 환풍기 같은 효과가 탁월하다. 체온은 안으로 잡아주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며 땀 배출이 신속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해준다. 세련되고 다양한 색상과 유려미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봄철 또

는 간절기 일상복은 물론 등산·레저 스포츠 아웃도어 골프·등산·낚시·사이클·조깅·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께 안성맞춤이다. 봄맞이 런칭기념 행사로 한 장 가격에 한 장을 더드리는 파격행사 중이다.

사이즈 95, 100, 105, 110 바람막이자켓 1 + 1 ₩189,000 → ₩3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쇼핑몰 :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선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